

치 사

금년도 4월은 우리 종단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매우 의미있는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행복바라미가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 딛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교단을 쇄신하고 보이지 않게 이웃과 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시대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과오는 사회와 국민의 아픔을 오히려 보듬지 못했다는 성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바라미에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책임자들의 각오에 더 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되며, 작은 몸짓,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기에 오늘의 초발심, 함께 모인 의지를 잊지 말고, 당장의 큰 성과나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 까지 노고를 마다치 않은 행복바라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기2557년 4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